

주제(Thesis):

- 하느님의 강 속에 흐르는 물줄기는 계속적으로 변화했는데, 이러한 새로운 사상들은 인간의 자의식에 변화를 가져옴
-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 (호흡이 멈출때, 영원히 흙으로 돌아간다)라는 옛 사상에서 -> 인간은 실질적인 영혼으로 몸(질그릇)과는 별개의 존재이다 -> 삶의 의미의 변경 및 이에 대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남

문제점/질문(Problems/Questions):

- 하느님의 강을 고대 근동과 주변 국가들의 역사에만 국한시킴
- 동양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에 미쳤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점

논점(Argumentation):

- 왜 신들은 인간들을 만들었을까
  - 바벨론의 창조설화에 의하면 지상의 노역을 대체할 노역자로 인간들을 창조 -> 신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 -> 제사의식과 희생제물 바치기 vs. 곡물 수확이 잘되게 신들은 자연을 **control** 함
- 일반적 운명: 내세가 없는 죽음
  - 초기 그리스의 일원론적 우주관 -> 인간은 죽을 운명을 지닌 존재
    - 영생을 구하려는 노력들 - **by** 인류의 원형들
      - 길가메쉬 - 우트나피쉬팀의 섬 -> 영생은 모든이들의 것이 아님 -> 회춘의 식물 -> 뱀
      - 에아의 자식 아다파의 이야기 - 아누(하늘의 신)의 재판 -> 죽음의 음식 vs. 신들의 음식 -> 생명의 음식을 먹지 않음 -> 영생의 기회를 잃음
      - 아담과 이브 - 다소 후기의 작품 -> 불순종으로 영생을 잃어 버림
    - 히브리 전통 - 주변 국가들과 비슷 -> 순종, 불순종과 관계없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-> 후에 인간의 불순종을 이유로 첨가
    - 스올 - 침묵과 어둠의 지하세계 -> 광명도 흑암같은 잠든 세상 -> 사후에 이렇다할 삶이 없었음 -> 모든 상벌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짐
  - 죽은 자의 심판과 내세 - 이집트
    - 이집트에는 내세와 죽은자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었음
      - 기원전 **2100** 년 - 메리카레 왕을 위한 교훈 ->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신들의 재판소 -> 잘못을 행하지 않은 자는 신과 같이 존재함
      - 죽은 자의 심장 -> 마아트 저울질 -> 축복된 내세 vs. 아메메트에게 먹힘
  - 죽은 자의 심판 - 조로아스터교
    - 이집트의 내세관과 비슷
    - 인간의 자유의지 -> 완벽한 선의 완성이 가능 / 죄의 보상이나 용서의 수단이 없음 -> 선택 그리고 책임
    - 미트라와 심판 - 생각/말/행위 -> 저울질 -> 영혼 -> 빛의 세계 vs. 지옥(어두운 구덩이 - 마지막 전쟁 때까지 고통 받음)
  - 영과 육 - 그리스 (그리스도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것을 제공)
    - 초기 그리스 전승
      - 초기에는 육체와 분리되어서 인간의 정체성을 담는 개념이 없었음 -> 수케이 - ‘숨’ ‘바람’ 이후 -> 하데스의 집 -> 유령의 형태



- 부활을 하면 ‘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’ (마르코 12:25) -> 예수는 사람들의 본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음 (p230) -> 바울로는 ‘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’함
    - 동방교회 - 그리스 전통을 따름 -> 몸은 땅에 속하며 천상의 집엔 육체가 거할 곳이 없다
- 그리스도교 이전 이스라엘에서의 육체와 영혼
  -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내세가 있다면 유령으로 저승에 내려감
  - 두 종류의 이원론
    - 페르시아의 영향 - 악마와 대결하는 하느님
    - 그리스의 영향 - 영혼과 육체의 대립
- 모두의 공통적 운명
  - 죽으면 끝 -> 죽을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감
- 이방인들의 갈릴리
  - 갈릴리의 지형 특성상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중요한 길목 -> 이에 반해 유다는 정반대로 갈릴리와 유다는 서로 다른 나라라 문화라 보아야함
  - 예수의 메세지 - 영혼과 내세에 대한 믿음 -> 대다수 사람들은 영혼과 내세를 믿지 않음
- 예수의 가르침 속의 나타난 영혼과 육체
  -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사상 -> 그리스 철학 (에 악마를)과 조로아스터교 (과학에 기초해 영혼과 육체를), 두 사상을 훌륭히 섞음. 예) 씨 뿌리는 비유 (마르코 4:3-8, 14-20) - 악마와 물질세계는 서로 힘을 합해 씨앗이 열매를 못 맺게 함 -> 두 전통이 섞여있음
  - 핵심은 - 영적 차원의 실재와 영혼의 가치에 대한 그의 이해 -> 육신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
  - 목숨을 바쳐서 자신을 희생하라 하며 -> 이런 희생이 죽음을 극복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 주장 -> 예수를 따라가는 흠이불을 뒤집어 쓴 청년 -> 흠이불을 버리고, 맨몸으로 달아남 -> 겉옷-몸을 잃었지만(살해됨) 그 벗은 영혼은 도망침
- 하늘에 있는 보화
  - 옛 일원론때 ->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- 물질적 부 / 예수의 참된 부는 -> 선함과 선행 = 축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/ ‘오늘 밤에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 가리라’ / ‘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등에게 주어라’
- 새 가족
  - 대가족 - 약속된 축복(고대 문화) -> 예수는 영적인 가족 =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말함
  - 기원후 4-5 세기 -> 수도원 공동체 내의 독신주의의 삶 -> 육체에 속한 삶(돈과 가족과 생명)도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과 비교할 수 없음
- 가치의 반전
  - 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’ 나라 -> 기존의 가치규범을 반박하고 있음
  - ‘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’ -> 왕과 종의 자리 바꿈
  - 모세의 언약을 정반대로 선포했다 -> ‘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.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...’ (루가 6:24-26) -> 이전에 축복받은 이들은 위기를 맞게 됨 (루가 6:24-26)
  - 유일한 실재와 영원성은 하느님의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 -> 영혼의 참된 기원이며 운명
  - ‘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’ -> 어둠의 세계에서의 박해와 고난 - 물질적 세계는 일시적임 ->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(고후 4:16-18)’

-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원한 영혼이 머무는 질그릇으로 보았으며,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므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

**평가(Critique):**

- 인간의 자아의식의 변화와 발전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설명함

**생각해 보기:**

- 옛 일원론은 그냥 단순하며 통찰력이 부족한 사상이었을까? 이원론과 비교해 볼때...
- 고대 근동의 신화는 인간이 신의 노예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는데, 왜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천하다고 여겼을까?
- 영혼과 육체의 분리 - 다시 합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인가? 육체는 어둡고, 무겁고, 영혼을 잡고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...